

보도 일시	2022. 12. 4.(일) 11:00 12. 5.(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2.(금) 16:00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유원상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박찬원 (044-201-2258)

전년보다 저렴해진 딸기,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 12월부터 공급량이 늘어 전년보다 가격이 내려갈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딸기 출하가 점차 확대되어 올해 12월에는 2021년 12월보다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12월 소매가격도 전년 2,200원(100g당)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올해 11월 딸기 가격은 전년보다 강세를 보였다. 생육기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정식(아주심기) 시기를 늦추면서 8월 정식면적이 전년보다 17%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가락시장 기준 11월 반입량이 전년보다 28%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2월 딸기 공급은 지난달에 비해 원활할 전망이다. 정식을 늦췄던 농가에서 출하를 시작하고 있으며 병·해충 피해도 적어 전년보다 단수가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2월 초에 갑자기 찾아온 추운 날씨로 생산량 증가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딸기 재배시설 난방이 중요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된 겨울철 재해 대비 사전점검을 통해 겨울철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 농협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절감 방안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유가 상승으로 딸기를 비롯한 겨울철 시설채소 전반에 걸쳐 경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산지 상황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작물 생육 기술지도를 늘려 겨울철 시설채소 공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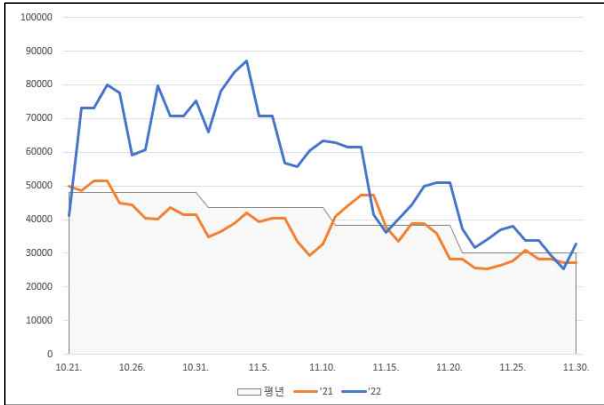
붙임 딸기 가격·반입량 흐름 및 주요 출하지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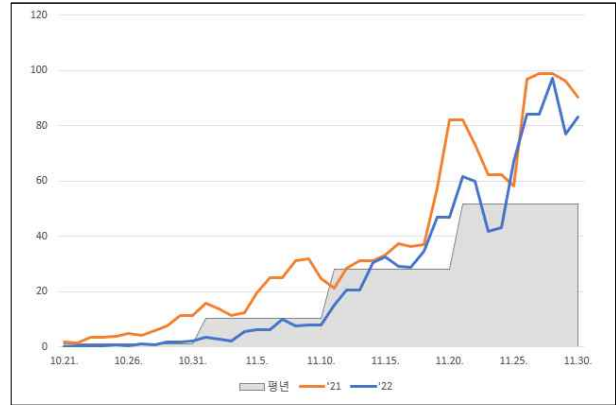
딸기 가격 · 반입량 흐름 및 주요 출하지

□ 2022년 도매가격 및 반입량 변화 추이

<도매가격 동향(2kg,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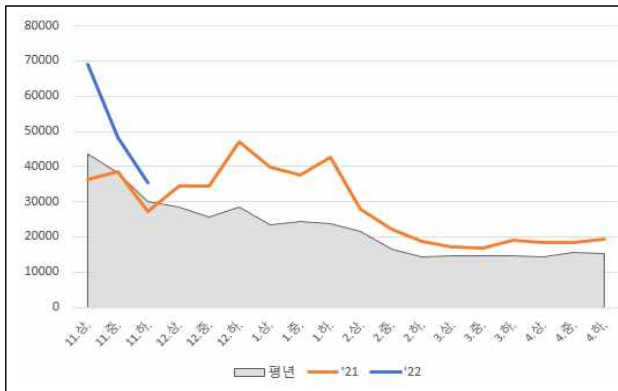
<반입량(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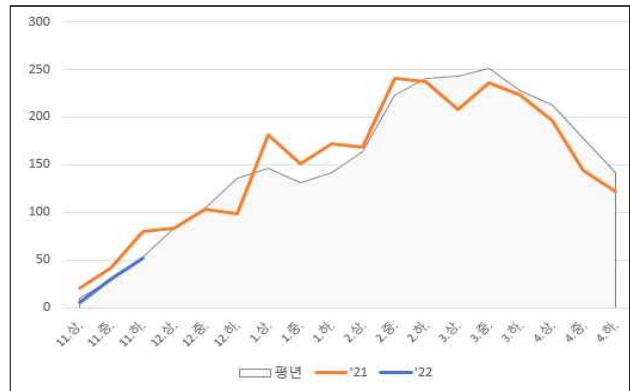
* 도매가(원/2kg): (10월 하순)68,567→(11월 상순)69,053→(11월 중순)48,437→(11월 하순)33,263
 일 반입량(톤): (10월 하순)1→(11월 상순)6→(11월 중순)30→(11월 하순)68
 (가격) 가락시장 2kg 상등급품 기준 / (반입량) 가락시장 딸기 반입량 기준

□ 딸기 출하 시기별 가격 및 반입량 흐름(11월~이듬해 4월까지)

<도매가격 동향(2kg, 상품)>



<반입량(톤)>



* (가격) 가락시장 2kg 상등급품 기준 / (반입량) 가락시장 딸기 반입량 기준

□ 시기별 주요 출하지

(단위: %)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1	산청	48.9	산청	35.4	산청	24.3	산청	23.4	산청	28.2	산청	27.6
2	논산	10.9	논산	10.7	논산	13.6	논산	15.5	논산	11.8	논산	13.1
3	홍성	4.7	홍성	7.1	담양	9.3	담양	10.3	담양	10.8	담양	12.0
4	함양	4.7	거창	5.6	거창	6.6	홍성	6.7	익산	5.8	홍성	6.9
5	거창	4.4	함양	5.4	홍성	6.4	익산	6.2	홍성	5.8	거창	5.7

* 2021년 10월 ~ 2022년 4월까지 가락시장 반입물량 기준